

광활한 우주에서 읽은 불멸의 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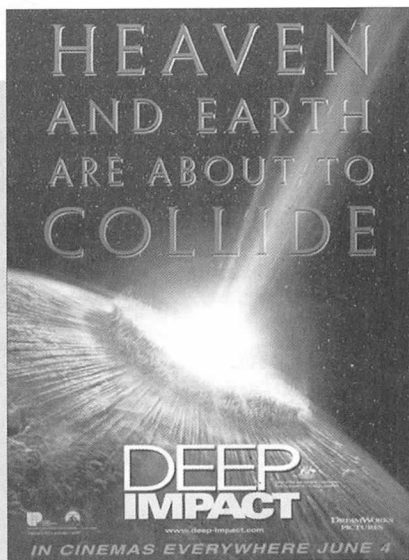
미미 레더의 <딥 임팩트>와 멜빌의 <모비딕>

김경욱 | 소설가

“내 이름은 이슈마엘... 울적한 나머지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거리에 뛰쳐나가 그저 지나가는 사람의 모자를 나꿔채 벗겨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 위해 대단한 도덕심을 가다듬어야 할 때, 이런 때에는 하루라도 빨리 바다에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것은 나에게 권총과 탄환의 대용물이 되는 셈이다.”

멜빌의 소설 <모비딕>의 너무나도 유명한 오프닝이다. 한번 상상해 보라. 저 광활한 우주의 어느 공간 속에서 <모비딕>을 읽는 광경을. 유감스럽게도 그런 그림이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 영화 <딥 임팩트>를 보면 되니까 말이다.

미미 레더 감독의 영화 <딥 임팩트>는 뉴욕 크기만한 혜성이 지구를 향해 날아온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영화다. 몇해 전, 지구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혜성이 발견돼 세상이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다. 이런 전지구적이고 전인류적인 화제를 할리우드가 놓칠 리 만무하다.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소재를 다룬 영화 <아마겟돈>이 제작돼 두편의 영화는 여러 가지로 비교대상이 되기도 했다. 어쨌거나 지구상에 1억6천만년 동안이나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군림했던 공룡을 멸종시킨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소행성의 출현은 대단히 흥미로운 소재임에 틀림없다. 특히 <딥 임팩트>는 과학자들로부터도 굉장히 사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더욱 유명해진 영화다. 지구와 혜성의 파편이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바다에 해일이 일어 뉴욕의 맨해튼이 바다물에 잠기는 장면이 바로 그것이다. 할리우드의 재난영화사에 길이 남을 이 장면을 포함해서 <딥 임팩트>를 생각하면 세계의



지구로 돌진해오는 혜성을 폭파시키는 데 실패하고 정처없이 우주로 떠도는 메시아호. 이 때 선장 태너는 눈 먼 대원에게 <모비딕>을 읽어준다.

인상적인 장면이 떠오른다. 인상적으로 기억되는 장면이 세계적이라면 그 영화는 어느 정도 성공한 셈이다.

세계의 인상적인 장면 중 두개는 너무나 할리우드적인 반면, 나머지 하나는 할리우드적이지 않은 것이다. 할리우드적인 두개의 장면은 이미 앞에서 소개했듯 대서양의 해일 속으로 자유의 여신상으로 상징되는 맨해튼이 침몰하는 장면과, 핵무기를 품에 안고 혜성으로 돌진하기로 결심한 '메시아' 호의 대원들이 화상을 통해 가족들과 작별하는 장면이다. 이 두장면에는 할리우드의 이데올로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스펙터클과 가족주의, 영웅주의와 더불어 할리우드 영화를 규정하는 이 두가지 최종심급은 철저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시퀀스에 의해 관객의 체내 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촉진시킨다. 동일한 소재를 다룬 영화 <아마겟돈>이 브루스 윌리스라는 마초맨의 영웅주의에 치우쳤다면 <딥 임팩트>는 가정의 수호라는 이데올로기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나 몇 가지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편의 영화는 '할리우드적'이라는 수식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딥 임팩트>에는 굉장히 할리우드적이지 않은 장면이 하나 있다. 시각을 압도하는 스펙터클도 없고 할리우드의 보수적 이데올로기도 없는, 영화적인 상상력이라기보다는 문학적 상상력에 근접한 장면이다.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혜성을 핵미사일로 폭파시킬 임무를 띤 우주선 메시아호, 그 이름만큼이나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메시아호는 대원 한명의 생명과 또 다른 대원의 눈을 잃는다. 이런 희생에도 혜성은 두개로 쪼개진 채 지구를 향해 계속해서 돌진한다. 임무가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지구에서는 제2의 노아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지하에 노아의 동굴이 건설되지만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대재앙 앞에서 무력한 인간들의 아비규환으로 지구는 이미 아수라장이 된다. 임무수행에 실패하고 정처없이 우주 공간을 떠도는 메시아호. 메시아호의 선장 태너(로버트 듀발 분)는 눈이 먼 대원 곁에 다가가 이렇게 말한다.

“아무도 책을 가져오지 않았더군요. 난 <모비딕>과 <허클베리 핀>을 가져왔지. 아무도 안읽었다는군. 혹시 자네 읽어봤나?”

7년 전 나는 20대 초반이었고 추운 강의실에서 <모비딕>을 읽고 있었다. 젊다는 이유만으로 우울하고 불안하던 그 시절, 주머니가 텅 비고 11월처럼 기분이 우울해질 때면 권총과 탄환 대신 바다로 달려간다면 <모비딕>의 오프닝을 읽어내려갈 때의 전율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 감동적인 문장을 메시아호의 선장은 영화를 보며 자라난, 그래서 <모비딕>이나 <허클베리 핀> 같은 자국문학의 바이블조차도 읽지 않은 젊은 대원에게 들려준다. 나는 지금도 가끔 상상해 본다. 저 광활한 우주 공간 속에서 <모비딕>을 읽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져보기도 한다. 만일 지구를 향해 돌진해 오는 혜성을 폭파하기 위해 핵미사일을 탑재한 우주선에 타게 된다면 대체 어떤 소설을 들고 갈 것인가? ●